청년창업 지원·노인일자리 확대로 소득 늘린다

‘인간다운 삶 보장’ 광주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2조원 재원 마련이 관건… 선심성 행정 비판도

광주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복지의 기준을 담은 ‘광주시민복지기준’이 마련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5일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높은 복지를 누리기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1년 이상 시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해 85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복지 기준의 대상인 시민들이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자치구 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들도 반영됐다.

복지기준은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다.

이 가운데 돌봄은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했다. 5대 분야, 9개 영역에 세부적으로는 65개 사업이다.

광주시민 소득을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이상 달성하는 것이 소득분야의 핵심 기준이다. 청년창업가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현재 48% 수준인 중위소득 비율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거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 비율을 4%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 미달가구 비율은 6.1%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수당 인상,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평균 수명 연장 등도 담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 및 의무교육 실현과 시민의 평생학습 권리보장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올해만 필요한 재원은 56개 사업에 5194억원이다. 목표연도인 2019년까지 무려 2조9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열악한 시 재원에서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복지기준 달성이 가능할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른 무상보육 논란이 보여주듯 지자체의 복지기준선 마련이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지자체 출범 이후 일선 지자체가 앞다퉈서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운 선심성 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복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재정을 감안해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취임식 갖고 공식업무 시작

광주전남연구원 박성수 원장이 지난 15일 광주시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정립을 위한 통합연구원의 새로운 비전 설계와 함께 자치단체 및 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연구수요와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및 지역특화산업 전문연구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와 학제 간 공동연구 유도, 정책수요자와의 쌍방적 소통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천성을 제고하는 등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원장은 35년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대한경영학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발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개방형 감사관 첫 내부인사 방옥길 씨

전남도 개방형 감사관에 방옥길(57)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임용됐다.

방 신임 감사관은 전남도가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 도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발탁됐다. 4급 서기관에서 자연스럽게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방 신임 감사관은 감사관, 세정담당관,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관 임기는 2년이다./윤현석기자chadol@

“지지자들 성원에 감사 합니다” 대만의 첫 여성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지지자들과 함께 15일 선거본부에서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한중FTA 전략품종 해삼 육성 3월말까지 10만마리 양식어가에 분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전략 품종인 해삼 양식 기술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삼 종묘 이모작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양식 방법을 발굴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양식어가에 우량종묘 10만 마리를 분양해 본격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육상 양식장 주력 생산 품종인 넙치, 전복의 대체 품종으로 해삼이 부각되면서 시험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가 증가함에 따라 해삼산업연구센터에서 자체기술로 생산한 우량종묘 10만 마리를 분양하기로 했다.

중국은 연간 20만t의 해삼을 생산,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함께 중·노년층 건강 관리와 젊은 층 스트레스 증가로 웰빙식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부족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소비할 만큼 해삼 생산 및 소비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삼산업연구센터는 최근 고밀도 육상 수조식, 침하식 가두리, 트랙형 축제식 양식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용 상품 크기의 활해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삼 종묘를 연간 이모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실외 트랙형 수조를 이용한 축제식 양식장을 시설해 체중 0.3g의 어린 해삼을 4개월 만에 30g으로 성장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분양 예정인 해삼종묘 10만 마리는 지난해 1~2차에 생산한 어린 해삼 25만 마리 가운데 일부다. 지금까지 완도, 진도 양식어가에 2만4000마리를 분양했으며 나머지 물량 7만6000마리도 3월 말까지 양식어가에 분양할 예정이다. 어린 해삼 분양단가는 마리당 기준으로 0.5g 100원, 1g 200원, 2g 이상 400원 등으로 육상 수조식, 노지 트랙형 축제식 등에서 양식이 가능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05년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시대 개막

차이잉원 56%로 압승 … 8년만에 정권교체

경제 살리기가 표심 갈라 걸그룹 쯔위 결정적 역할 중국과의 관계 격랑 예고

대만에서 105년 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다. 차이잉원(여·59) 대만 민진당 주석은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짓고 8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차이 주석 득표율 56.1%로 압승=지난 16일 대만에서 열린 총통 선거에서 야당 민진당 후보인 차이 주석이 56.1%(689만4744표)의 득표율로 31.04%(381만3365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여당 국민당 후보 주리룬(54) 주석을 제치고 당선됐다. 친민당의 쑹추위(73) 후보는 12.84%(157만6861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차이잉원 주석이 당선됨에 따라 대만은 8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게 됐다. 또한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자, 소수민족 출신 대통령을 맞게 됐다.

총선에서도 민진당은 정원 113석 중 과반수인 68석(종전 40석)을 차지해 차기 총통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게 됐다. 국민당은 35석(종전 64석)을 얻는데 그쳤다.

◇경제문제가 표심 갈랐다=민진당이 정권탈환을 실현한 원동력은 경제다. 최근 블룸버그가 세계 95개국의 올해 경기침체 확률을 조사한 결과 대만은 55%로 우크라이나에 이어 5번째로 경기침체 위험이 큰 국가로 꼽혔다.

마잉주 정부는 취임 후 친중 정책으로 양안관계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지나친 친중 정책은 대중 경제종속의 심화로 이어지며 산업 내수 경기 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이어졌다.

한때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한국의 37%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산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잉주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그 결과 국민당은 민진당에 8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막판에 한국의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周子瑜·17)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을 계기로 대만독립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표심에 영향을 줬다. 경제 문제에 묻혀 있던 대만의 정체성과 독립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 연예인 사건으로 민진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안 격량 예고=차이 당선자가 16일 승리선언 첫마디부터 “어떤 압박도 거부하겠다”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자 중국 당국도 분열활동 반대 입장을 밝히며 양안관계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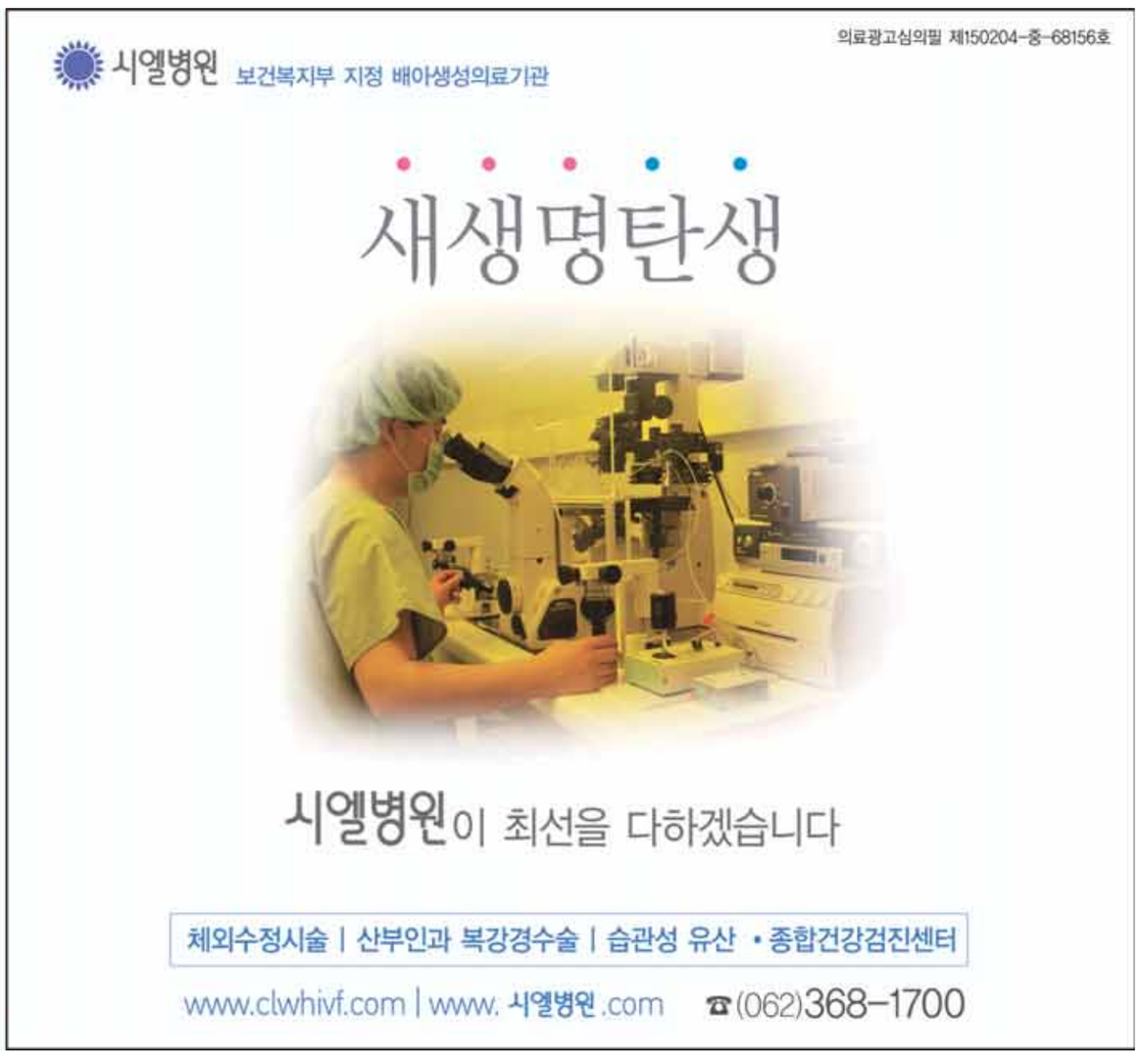
차이 당선자는 지난 16일 대선승리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대만은 서로 대등한 존엄을 추구해야하며 도발과 의외의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형태의 압박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치성·예측가능성·지속 가능한 양안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대만 선거 다음날 곧바로 성명을 통해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라면서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있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당국은 웨이보에서 차이잉원과 쯔위의 이름을 금지 검색어로 포함시켰다. 앞으로 양안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다.

◇차이 주석은 누구=차이 당선자는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박사 학위까지 마친 정통 학자 출신이다. 대만 국립정치대 법대 교수로 지낼 당시인 1994년 리덩후이 전 총통시절 대(對) 중국 정책 자문위원을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선거판마다 외유내강의 카리스마로 수렁에 빠진 민진당을 잇달아 구해내며 선거의 여왕, 민진당의 잔다르크라 불려왔다. 그는 특히 여성·소수민족·첩의 자식·미혼이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성공한 입지전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56년생으로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은 산악거주 대만 원주민의 피가 섞인 푸젠성 출신의 소수민족 객가(客家)의 후예로 분류된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周子瑜) /연합뉴스

형제자매 중 막내딸인 차이는 아버지 첩실이었던 장진펑(張金鳳)의 소생이다. /연합뉴스